"채워 주는 경제, 희망의 경제 만들겠다"

권영길 민노당 대선후보 인터뷰 신항락 편집국장

광주일보는 대선 후보 인터뷰 마지막 순서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를 만났다. 권 후보는 진보세력의 대표 주자답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물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가칭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에게까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농민과 서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약속했으나 광주·전남 발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오전 민노당 전북 김제시위원회 사무실에서 신항락 편집국장과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낡은 세력' 집권 안돼…노동자 중심 새정치가 대안

'진보 대 보수' '비정규직 확산 대 저지' 세력간 대결

400만명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 이뤄야

광주·전남 연계 문화관광벨트 형성을

— 지난 19일 보성·순천을 시작으로 현장을 훑는 만인보 민생 대장정에 들어갔는데.

▲고은 시인이, 자신이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시로 옮긴 '만인보'처럼, 나는 노동자·농민의 눈물을 '권영길의 만인보'로 묶어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에서 길거리와 들판, 공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들의 말과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 정책과 연결하고자 한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농촌 시·군·읍·면·리까지 들어가 농민을 만나는 것은 보수 정치권의 일상적 대선 행보와는 다른 것이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전남에서 만인보 행보를 시작, 현재는 전북은 돌고 있다. 호남은 동학농민운동과 5·18 투쟁의 중심지였다. 또 민주화 운동 끝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만들었다. 이제 절차적 민주화는 만들어졌고 남은 것은 실제 농민과 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 직접 느껴본 민심은 어떤가.

▲농업 붕괴는 오래된 이야기다. 특히 올해 들어 잦은 비와 태풍으로 벼농사가 흉작이다.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수확량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가도 낮아지고 수매량도 늘리지 못했다. 농민의 분노가 체념으로 바뀐 지 오래다. 비정규직 등 도시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제 민노당이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바꿔 놓은 것이 뭐냐. 농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지 않았나. 이번 선거는 '진보 대 보수', '한미FTA 반대 대 찬성', 비정규직 저지 대 확산'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 후보 모두 나와 반대에 있다. 결국 이명박 후보와 맞설 후보는 권영길뿐이다.

—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질서와 체제의 첫 발을 이번 17대 대선에서 내딛어야 한다.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져 가고 있다.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이제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처지와 질을 중심으로 놓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다. 이명박 후보의 한나라당이 분단과 독재, 개발지상주의 등 '과거를 대표하는 낡은 세력'이라면 정동영 후보의 대통합민주신당은 IMF 이후 사회양극화와 서민경제 파탄 등 '현재를 대표하는 낡은 세력'이다. 과거를 대표하든 현재를 대표하든 '낡은 세력'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대안이 돼야 한다.

— 정동영 후보가 범여권 후보 중 지지도 1위인데.

▲정동영 후보는 필패 카드이고 이명박 후보와 같은 색깔이다. 호남 민심의 대변자는 권영길이라고 자부한다. 또 정 후보는 경선 반칙왕이다. 반칙왕이 반칙의 명수 이명박을 이길 수 없다. 버스·폰떼기에서 유령선거인까지, 이것만으로도 후보 자격은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 후보는 당의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정 후보의 지난 행보는 염치없는 것이고 현재 행보는 비겁한 것이다.

— 민노당 대통령 후보를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 그 원동력은.

▲민노당 당원들은 이번에도 권영길을 선택했다. 97년 국민승리21 시절부터 2004년까지 당을 이끌어 오며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국회로 진입하는 나름대로 헌신해오고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온 데 대한 당원들의 애정 어린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17대 대선은 민노당이 원내정당으로 도약한 이래 처음으로 치르는 대선이다. 민노당은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제 3안의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 민노당 당원들은 권영길에게 이런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 것이다.

— 경제문제가 화두다.

▲이명박 후보가 독주하는 원인이다. 경제문제는 이 후보의 강점이자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MB(이명박) 경제는 절망의 경제다. 노동자·서민의 밥그릇과 지갑을 빼앗아가는 경제다. 하지만, 나는 채워주는 경제, 희망의 경제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봐라. 노동시장 유연화는 대량해고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고용안정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또 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다.

—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비전은.

▲권영길의 경제는 FTA를 반대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을 완전 철폐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경제, 서민중심경제다. 구체적으로는 연 5% 성장의 안정적 달성과 연 5% 소득 불평등도 개선을 목표로 두고, 내수동력, 산업동력, 평화동력, 일자리 동력, 경제민주화 동력 등 5대 경제동력을 활용하겠다. 이를 위해 5가지 전략을 추진하겠다. 우선 300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1천만명의 고용안정을 이루겠다. 또 자산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해 서민의 소득안정을 이루며 남북·동아시아 연대경제를 구축하여 경제발전동력 확충과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어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친환경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대, 경제를 민주화하겠다.

— 지지율이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정치는 생물이다. 지지율은 정치 지형, 구도에 따라 변한다. 앞으로 요동칠 것이다. 범여권 후보들은 필패 카드다. 이명박 후보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후보는 권영길뿐이다. 정치지형은 이명박 대 권영길로 바뀌고 마침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옳은 것이 이기는 시대다.

—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는데.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더한 것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 문국현 후보와 성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성향이 비슷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문 후보는 성향이 모호하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만 기업경영에 있어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 그것도 구체적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외 민노당과 비슷하다는 기준 제시가 없다. 비슷하지 않다고 본다. 문 후보는 환경후보라고 자랑하는데 유류세 인하 공약만 봐도 환경후보가 아님을 스스로 보여준다. 유류세는 환경세와 마찬가지다. 유류세 인하는 환경오염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 자신의 교육 비전은.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른바 '333해법'을 제시했다. 3불 정책은 유지하고 교육 3적(사교육비, 입시, 학벌) 척결하는 한편, 3통(통합 전형, 통합 학점, 통합 학위) 정책이 그것이다. 또 임기 내에 초중고대(공립)의 무상교육을 하겠다. 사립대는 300만원 이하로 등록금을 묶겠다. 이 같은 정책은 대학평준화로 이어져 서열화가 없어지고 입시과열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뭔가. 2007년 (일부) 대학등록금이 1천만원이 넘어가면서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후보의 150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공약은 고등학교 수업료 1천만원 시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자사고는 중학교까지 입시지옥으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입시비용을 지출토록 만들 것이다. 이는 5%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은.

▲지방분권과 경제가 핵심이다. 지방분권은 재정과 인사권의 이양이 요체다. 재정과 인사권의 지방정부 이양 없는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약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구호만의 지방분권이었을 뿐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농업을 살리고 영세상인·자영업자와 도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 대형마트의 규제 없이 재래시장이 살 수 없다. 대형마트의 수입 대부분이 중앙으로 가고 있다. 지역 돈은 지역에서 유통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재투자법을 만들고자 한다.

—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은.

▲광주와 전남은 행정체계상으로는 분리돼 있어 독자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리적 인접성이나 전통, 문화적 공통성에 기반한 공동의 발전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천혜의 관광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남과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 형성전략이 필요하다. 전남은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등의 산악자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갯벌 등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개발과 독점의 20세기 방식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진 21세기형 문화와 관광지로 광주, 전남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 물론 광주와 전남간 연계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을 조속히 확충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농도인 전남의 농산물과 연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 전남의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우선 구매, 소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도 지키도록 하겠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인터뷰 분위기는

황토색 점퍼에 단화 소탈

타 후보들 거침없이 비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전북 김제의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인터뷰 일정에 맞춰 김제시위원회 사무실로 급히 왔다. 황토색 점퍼에 단화를 신은 소탈한 모습이었다. 권 후보는 이미 두 번이나 대선전을 뛰어본 베테랑(?) 답게 인터뷰 내내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언론계 출신 선배(서울신문 기자 출신)로서 후배 기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동영 후보를 비판할 때는 거침이 없었다. 지지율이 기대만큼 오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정당과 후보로서의 비전, 이슈에 대한 비판을 가할 때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